

#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⑬

〈지난호에 이어〉  
**1차 부도의 악몽**  
 어렵게 어렵게 1980년을 넘기고 1981년을 맞이하였다. 당시 화천은 어려운 자금사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하나라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국 업체의 L/C(수출 신용장)가 도착한다는 전제 아래 삼성종합무역사로부터 8억 원 정도의 자금을 앞당겨 빌려 쓰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 판매는 극히 부진했지만 수출만은 그런대로 1천만 불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삼성 또한 서로 신용을 지켜온 전례에 따라 화전을 믿고 그 돈을 어음 몇 장만 받고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해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신용장 내도가 딱 끊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그 해 1월 화전이 발행해 준 견질어음 1억 원짜리를 은행에 돌려 결제를 요구해 왔다.

결국 화천은 그 1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그런데 삼성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어음만 받아 두었다가 부도를 당하고 보니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이다. 부도가 난 1억 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머지 7억 원마저 날릴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내게 사담을 보내 협상을 제의했다. 협상 조건은 부도어음을 자기네가 회수하겠으니 수출용으로 쌓아둔 현품을 자기네가 지정한 창고에 보관하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수출 현품을 담보로 하여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이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화천은 1차 부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회사를 살리려는 중임원들의 한마음**  
 이때까지 회사는 3개월 치의 봉급에다 3월분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노조위원장인 이준 군과 간부들이 내 방으로 찾아 왔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힘없이 앉아 있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걱정마십시오. 이제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쪼들리고 있는데 저희들인데 어찌 월급만 받고 있었습니까? 어제 전체 조합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한 회의를 갖고 오는 8월까지의 급여를 유보시키도록 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월급을 8월까지 유보시켜 주시고 보너스는 회사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받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기계를 들고 나가 팔아 보겠습니다.”

150여억 원의 은행빚을 진 채 경영난에 쪼들리고 있는 회사를 살리고자 결의, 체불된 지난 3월분 급여 1억3,000만 원을 오는 8월까지 유보시켜도 좋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지난해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됐던 100%의 상여금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으며 1979년에는 연 300%로 보장된 상여금을 75%만 받았다고 회사에 양보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의 결의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기계를 들고 거대 처를 돌아다니며 직접 판매에 나섰다. 비록 그들이 판 물량은 정식 판매활동에 비해 별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시련에 처한 화천 가족의 저력을 한데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화천만은 도와줘야 한다’는 공



△화천기계주식회사(전남 광주시 광산구)

회장님께서서는 1978년 회사가 한창 잘될 때 당초 지급기로 한 보너스 300% 외에 150%를 더 지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가 어려운 이때 그 보너스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 노조원 모두는 회사와 함께 그리고 회장님과 더불어 이 회사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화천 노조원들의 보너스 반납과 임금 유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화천의 노사관계’를 대서특필해주었다. 이 또한 화천 가족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1981년 6월 2일자)의 관련 내용이다.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희생적인 노사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금속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화천기공(회장 권승관, 62) 근로자 717명은

노조원들의 결의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기계를 들고 거대 처를 돌아다니며 직접 판매에 나섰다. 비록 그들이 판 물량은 정식 판매활동에 비해 별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시련에 처한 화천 가족의 저력을 한데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화천만은 도와줘야 한다’는 공

회장님께서서는 1978년 회사가 한창 잘될 때 당초 지급기로 한 보너스 300% 외에 150%를 더 지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가 어려운 이때 그 보너스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 노조원 모두는 회사와 함께 그리고 회장님과 더불어 이 회사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화천 노조원들의 보너스 반납과 임금 유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화천의 노사관계’를 대서특필해주었다. 이 또한 화천 가족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1981년 6월 2일자)의 관련 내용이다.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희생적인 노사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금속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화천기공(회장 권승관, 62) 근로자 717명은

노조원들의 결의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기계를 들고 거대 처를 돌아다니며 직접 판매에 나섰다. 비록 그들이 판 물량은 정식 판매활동에 비해 별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시련에 처한 화천 가족의 저력을 한데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화천만은 도와줘야 한다’는 공

회장님께서서는 1978년 회사가 한창 잘될 때 당초 지급기로 한 보너스 300% 외에 150%를 더 지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가 어려운 이때 그 보너스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 노조원 모두는 회사와 함께 그리고 회장님과 더불어 이 회사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화천 노조원들의 보너스 반납과 임금 유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화천의 노사관계’를 대서특필해주었다. 이 또한 화천 가족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1981년 6월 2일자)의 관련 내용이다.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희생적인 노사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금속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화천기공(회장 권승관, 62) 근로자 717명은

노조원들의 결의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기계를 들고 거대 처를 돌아다니며 직접 판매에 나섰다. 비록 그들이 판 물량은 정식 판매활동에 비해 별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시련에 처한 화천 가족의 저력을 한데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화천만은 도와줘야 한다’는 공

회장님께서서는 1978년 회사가 한창 잘될 때 당초 지급기로 한 보너스 300% 외에 150%를 더 지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가 어려운 이때 그 보너스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 노조원 모두는 회사와 함께 그리고 회장님과 더불어 이 회사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화천 노조원들의 보너스 반납과 임금 유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화천의 노사관계’를 대서특필해주었다. 이 또한 화천 가족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1981년 6월 2일자)의 관련 내용이다.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희생적인 노사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금속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화천기공(회장 권승관, 62) 근로자 717명은

#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⑭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새끼 낳는 놈들이 사이좋게 왕궁거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의 꿀을 따 옮기고 죽어 버려진 것을 찾아 모으며 한눈 팔지 않고 부

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 생각건대 미물에 게도 먼 알날을 생각하는 큰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주어진 삶이니 오로지 그 생존만을 갈구하여 스스로 그치지를 못할 뿐인가?

사람이 삶에 대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을 뿐인가? 세상이 마치 고통의 바다와 같다면 요절하는 자는 복이 되고 장수하는 자는 재앙이 되며, 요절하면 억울한 것이 없기 쉽고 장수하면 착함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되니, 사람마다 모두 바다로 달려나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역시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그 삶을 높이고 선을 쌓아 이로 열반에 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余于人之生死, 不敢妄斷而, 宇宙之內蒼茫之外, 儼存者主宰, 欲扶眞養善, 滅惡消凶, 以率萬物而生人也, 則信矣. 人之於生也, 樂道安分, 忍辛耐苦, 勤政而毋敢, 則善矣. 存性養志, 行善而不怠, 使得俯仰而無愧, 則雖死而無憾(餘), 亦足矣. 余於是乎, 歎聖訓之無, 而知慶域之壽祿能致其久遠也.

내가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감히 망령되게 단언하지는 못하나,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엄연히 존재하는 분이 세상을 주재하며 진실을 북돋우고 선을 기르며 흉악함을 소멸시키고자 하면서 만물을 통솔하고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믿을 만한 것일 것이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리를 좋아하고 분수를 지키며 괴로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 힘써 일하면서 함부로 원망을 하지 않는다면 곧 착하다 할 것이며, 품성을 보존하고 뜻을 기르며 착한 일을 행함에 태만하지 않아서 하늘을 우르러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기에 비록 죽는다 하여도 여한이 없다면 역시 족할 것이다. 내가 그러한 까닭에 우리 성인들의 가르침이 없어지고 드물어진 것은 한탄스럽지만, 우리 진역(震域)의 장수와 복록은 능히 오래도록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b>■ 총재단회비</b> △권승성(부총재) 100만원 △권계동(삼임부총재) 100만원 △권종준(감사) 100만원 △권영성(부총재) 100만원 △권경웅(부총재) 50만원(일부) △권영성(부총재) 100만원 소계 550만원	
<b>■ 중무위원회비</b> △권영욱(합천) 20만원	
<b>■ 대의원회비</b> △권용수(대전) 10만원 △권오선(노원) 10만원 △권인순(대전) 10만원 △권경환(영천) 10만원 △권영건(예천) 10만원 △권오익(안동, 상일맨션) 10만원 △권오성(봉화, 혜성병원) 10만원 △권혁정(대구) 10만원 △권유수(금천) 10만원 △권도현(창원) 10만원 △권혁필(영동포) 10만원 △권영배(부산부녀회장) 10만원 △권순창(안동, 별장공과) 10만원 △권장은(안동) 10만원 소계 140만원	
<b>■ 찬조금</b> △권승일(일본관서총친회) 194,226원(일화 2만2천) 소계 7,294,226원	



## 역사기행

# 부안 성황산기슭 서림공원 매창시비(梅窓詩碑)를 찾아서

■ 함춘 권오창 (본원 자원위원)

매창은 조선조의 기녀(妓女)시인으로 어느 만에 있어서는 황진이와 함께 쌍벽을 이룬다. 매창은 1573년 부안현의 아전 이었던 이탕종(李湯從)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난 해가 계유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계생(癸生)이라고 하였다. 보통 신분계층이 낮은 태생은 그가 태어난 달(月)을 기준으로 이월(二月)에 태어난 이월이(李月)라는 별명을 붙여 삼월(三月)이면 삼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녀는 태생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기생의 필수 현악기인 거문고를 배웠고 소리와 춤을 배웠다는 것은 자연스런 단계였다고 본다.

그녀가 한시(漢詩)에 능한 재주를 보인 것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웠다고 하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녀의 한문 시구에 나타난 중국사 인용부분은 대단한 학문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매창은 그녀의 자호이며 당시 문인들과 벼슬을 한 지방관들이 붙인 애칭은 계랑(桂娘)이라는 별을 붙였다. 그의 자는 천향(天香)이다. 계랑은 기생이 되었다고 하여 자기 몸을 허수히 버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절개가 곧았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황진이는 송도에서 박연 폭포 벵계수와 함께 송도 3절이라고 이름난 것과 같은 계랑의 처신은 일반하다. 계랑의 매창이라는 호는 설중매화를 지칭한 곧은 절개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계랑이 읊은 시중(詩中)에는 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이 더욱 절실히 표현되어 있고 당대의 문인들과 주고 받은 시구에는 이런 것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그녀가 당시 시를 잘 짓고 애정관계로 사귀었던 한양의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이 있었다. 그와 다년간 시를 짓고 애정을 가지고 교류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1600년대 초에는 당대의 뛰어난 문인 김제군수 묵재(默齋) 이귀(李貴), 홍길동전을 쓴 성소(惺所) 허균(許筠), 전라관찰사 한준겸(韓濬謙), 부안현감 윤선(尹善) 등이 매창과 시를 주고받았다. 또한 매창 시를 노래한 이원형도 시를 지었고 매창을 칭찬하여 시 한수를 지어준 석주(石洲) 권필(權樸 1569년-1612년)공도 있다. 석주(石洲)공이 매창에게 지어준 시는 증천향여인(贈天香女性)이라는 시제로 다음과 같다.

선자불합재풍진(仙姿不合在瓊塵) 독포요금원모춘(獨抱幽琴怨暮春)

현도단시장역단(絃到斷時腸亦斷) 세간난독상음인(世間難得賞音人)

매창에 대한 한 가지 일화는 부안현감이었던 윤선을 사모하여 성황산 기슭에 세워진 윤선의 선정비 옆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산조와 노래를 불렀다는 애달픈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다.

매창은 1610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언에 의하여 거문고와 함께 묻혔다. 당시 그곳은 부안읍에서 남쪽으로 약 12km 거리에 있는 봉덕리 공동묘지이다. 그녀는 후손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시를 아끼고 사랑하던 그곳 사람들이 그녀의 묘소를 계속 돌보았고 1655년에 그녀가 별세한지 45년만에 그녀의 묘소 앞에 부안의 시인들이 묘비를 세웠다. 그리고 1668년에는 부안의 아전들이 구건되어 오던 매창 시(詩) 58수를 목판으로 간행하여 매창집을 엮었다고 한다. 1917년에

는 이미 세워진 묘비가 풍화작용으로 글씨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부안의 시인들이 다시 묘비를 세워 비 전면에 명원이매창지묘(名媛李梅窓之墓)라고 음각하였다. 1974년에는 서림공원에 매창기념사탑회에서 매창시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매창공원을 조성했고 부안문화원에서는 매창전집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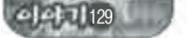
매창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노래말과 같이 당대의 시인묵객의 연인이었다. 허균은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계랑(哀桂娘)이라는 시 2수를 짓고 추석을 달았다. 그 추석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계랑은 부안의 기생이다. 시를 잘 짓고 문장을 알았으며 노래와 거문고도 또한 잘 하였다. 성품이 고결하여 음란한 것을 즐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 재주를 사랑하여 거리낌 없이 사귀었다. 비록 우스개소리를 즐기긴 했지만 어지러운 시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오래되어도 시들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한번 울어준 후에 시 2수를 지어 슬퍼한다.’

전북 부안은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빼어나고 물산이 풍부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여기에 시(詩)의 정서적인 면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이다. 꼭 한번은 찾았만한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 매창공원을 찾아 매창시 한 수를 읊어 보는 것도 풍류객의 맛이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끝)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척고전연구소 소장)



우리 말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다. 그뿐인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비슷한 속담이다. 정말로 어릴 적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짐작해 볼 수 있을까?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조 송(宋)나라에서 황제에 올랐다가 첫 번째로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 역사에서는 이를 전폐제(前廢帝)라고 불리는 유자업(劉子業)이다. 유자업은 1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유준(劉駿)이 11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겨우 35세 되던 해에 죽자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이 시대에는 이른 바 자유주의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이른 바 즉립철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멋있다고 보던 시대였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멋대로 하는 것을 숭상한다고 하여도 나라를 이끌어 가야하는 황제는 나라의 중심이므로 그 좋은 자유보다 자기를 얹어 쓰는 법도를 지키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만약에 나라의 중심인 황제조차 이러한 풍조에 휩싸인다면 그 왕조는 위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자업은 황제에 오르는 시점부터 멋대로 행동하였다. 유자업이 황제에 오른 것은 그의 아버지 효무제 유준이 죽은 다음에 바로였다. 황제의 자리는 한 시라도 비워 놓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주검을 옆에 두고 서였다. 사실 태자 유자업이 황제에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법도였지만,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서는 최소한도의 슬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인자상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이부상서 채흥종(蔡興宗)이 친히 황제의 옥새와 인수를 받들었으며 태자가 그것을 받았는데, 거만하고 게으르며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다. 아버지의 상(喪)을 당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를 보고 나온 채흥종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옛날에 노(魯)의 소공(昭公)이 슬퍼하지 않자, 숙손목자(叔孫穆子)가 그가 끝을 마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가정과 국가의 재앙은 바로 여기에 있다!”

채흥종은 옛날 춘추시대의 사례를 들어 말한 것이다. 춘추시대에 노나라의 양공(襄公)이 죽었는데 소공(昭公)이 추대되었다. 이를 본 숙손목자(叔孫穆子)는 ‘이 사람은 상중(喪中)에 서러워하지 않고 서러워해야 할 때 기쁜 용모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며 소공의 최후가 좋지 않으리라 단정하였던 일이 있는데, 채흥종은 유자업을 보고 그 최후가 좋지 않을 것을 예언한 셈이다.

이러한 일은 유자업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어머니 태후가 병이 위독하게 되자 아들인 황제 유자업을 불러 오게 하였다. 어머니로서는 임종을 앞 둔 마담이 당연히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되던 아무리 바빠도 열일을 제쳐 놓고라도 달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은 무슨 법도에 얽매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여 보자는 전갈을 받은 유자업은 말하였다. “병자의 방에는 귀신이 많은데 어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며 임종을 거부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그 어머니 태후는 화가 났다. “칼을 갖고 와서 나의 배를 갈라라. 저렇게 비린내 나는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었는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그 후 바로 태후는 죽었다.

이러한 사람이니 그가 행한 정치인들 오죽했겠는가? 그를 황제에 오르게 한 채흥종이 간언을 했지만 듣지 않았다. 쓴 약은 입에 쓴 법인데, 황제에게 올바르게 하라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하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게 하니 정치는 점차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결국 쫓겨났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책임 없는 자유가 가져다 준 결과다. 책임 없는 자유! 요즈음도 유행하는 풍조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